

대구주보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황 주일)

2014. 6. 29. (가해) 제1896호

전례와 선교의 활성화 ·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로4길 112(남산동) 053) 250-3048~9 <http://www.daegujobo.or.kr>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

† 오늘의 전례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마태 16,13-19 참조)

베드로 사도는 교육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한 사람이었고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사도 바오로는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을 다 아시고 앞일도 모두 아시는 주님께서서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은 듯한 분들을 교회의 기초로 세우셨습니다.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다릅니다. 주님이 틀리실 리는 없으니, 우리가 사람을 보는 눈이 틀린 것입니다.

제1독서 사도 12,1-11

제2독서 2티모 4,6-8,17-18

복음 마태 16,13-19

입당송 이 사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화답송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단순하고 솔직한 신앙의 삶

장병배 베드로 신부 | 범어성당 주임

사도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는 신앙의 반석과 초석으로, 또 주님을 향한 신앙의 굳셈의 상징으로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 베드로와 바오로 두 분이 신앙의 반석과 초석으로 우리에게 다가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충실한 제자이며 으뜸 제자인 베드로였지만 세상의 눈으로는 부족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 중의 한명이었으며, 때로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는 어리석음을 드러내기도 한 사도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오로는 예수님의 반대편에 서서 박해하던 사울이었지만 그분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다음 오직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나약하여 어리석어 보이기까지 하던 사도들이 어떻게 오직 주님을 향한 길을 걸으며 그분을 위하여 온전히 자신을 내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분 안에 머물며 그분과 함께 살고자 하는 단순함으로 자신을 채우고, 솔직하기까지 한 우직함으로 세상 만민에게 참된 복음의 선포자로 자신을 가꾸어 갔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 안에서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사도 바오로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십니다.

우리 신앙의 삶은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한 이 세상 안에서 시작되어지고 언젠가 그분 앞에서 살아 온 삶의 모습으로 판단 받으므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부터 주님을 굳게 믿고 그분의 말씀을 충실히 머물며 그분께 의탁하여 세상 삶을 잘 가꾸고 채워가기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그 노력은 우리를 사도들의 단순하고 솔직하고 우직하기까지 한 삶을 기억하여 오직 주님으로 자신을 채우고, 그분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기까지 하신 사도들의 신앙의 길을 충실히 따라 걷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님으로 자신을 채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익히며 실천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신앙의 삶은 한순간의 노력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순간의 삶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 가까이 서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바오로 사도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김민**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순교자 시복 및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 기념 특집 ③

자비로이 부르시니

miserando atque eligendo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의 방한이 이제 불과 4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에 이어 우리나라를 방문하시는 역대 두 번째 교황님이 되시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3년 2월 28일 전임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의 사임 직후 소집된 콘클라베를 통해 같은 해 3월 13일 제 266대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태생으로 1969년 사제 서품을 받으시고 1973년부터 1979년까지는 예수회의 아르헨티나 관구장을 지내셨으며, 1998년에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2001년에 추기경에 서임되신 후 마침내 교회 역사상 최초의 아메리카 대륙 출신 교황이면서, 최초의 예수회 출신 교황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남반구 국가 출신으로 최초의 교황이시기도 하며 시리아 태생이었던 교황 그레고리오 3세 이후 1282년 만에 탄생한 비(非)유럽권 출신의 교황님이십니다.

성하께서는 재위명으로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따서 ‘프란치스코’를 선택하셨습니다. 라틴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영어, 우크라이나어까지 구사할 줄 아시는 성하께서는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항상 검소함과 겸손을 잃지 않고 사회적 소수자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관용을 촉구하시며, 여러 가지 다양한 배경과 신념, 신앙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 소통이 오갈 수 있도록 대화를 강조하는데

헌신적인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버스를 타고 다니시는 것을 좋아할 만큼 소박하신 교황 프란치스코 성하께서는 교황의 전통적



인 거처인 사도좌궁전에 머물지 않으시고 작은 아파트식 주거지인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다른 사제들, 수도자들과 공동생활을 하고 30년이 된 승용차를 타십니다. 전례를 집전하실 때에도 화려한 장식이 없는 검소하고 소박한 제의를 입으십니다. 그리고 순금으로 주조해 왔던 어부의 반지를 도금한 은반지로 교체하셨으며 목에 거는 가슴 십자가는 추기경 시절부터 쓰던 철제 십자가를 그대로 착용하고 계십니다.

교황 성하께서는 권고문 〈복음의 기쁨〉 49항에서 “자기 안위만을 신경 쓰고 건강하지 못한 교회보다는 거리로 나와 다치고 상처받고 더럽혀진 교회를 더 좋아한다”고 밝히셨습니다. 2014년 3월, 미국의 유력지인 〈포춘(Fortune)〉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리더 50인 중 1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선정했고,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도 1994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이후 19년 만에 올해의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을 선정했습니다. **▶▶▶**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주님을 따르다 겪는 아픔

이시임 안나(1782-1816)의 순교이야기



이시임 안나
(1782-1816)

하느님을 믿으면 좋은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은 커녕 더 괴롭고 아픈 일을 당해 눈물을 흘려야 했던 기억은 없는가? 그런 때 하느님이 원망스럽지는 않았던가? 하느님을 믿고 따르다 겪는 순교자 이시임 안나의 기구한 운명은 참으로 가슴 아프지만 하느님께서는 그녀의 삶을 통해 지금 울고 있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신다.

재색을 겸비한 처녀로 주변의 관심을 끌었던 이시임 안나는 충청도 덕산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났다. 본디 천주교 집안이 아니었으나 그녀는 천주교를 믿게 된 후 열성적으로 교리를 실천하며 일생 동안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하였다. 이 때문에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였다. 그녀는 고향을 떠나 동정녀 공동체로 가던 중 박씨 뱃사공과 강제로 혼인을 하게 된 아픔이 있었다. 이듬해 둘 사이에서 아들 ‘종악’이 태어났으나 몇 해 되지 않아 남편이 죽는 슬픔을 겪어야 했다. 과부가 된 후에도 그녀는 더욱 열심히 교리를 실천하고자 아기를 데리고 경상도 진보 머루산의 교우촌으로 들어가 살았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그녀는 포졸들에게 체포되었으니 그때가 1815년이였다. 안동진영으로 끌려가 고문을 당한 후 다시 대구감영으로 이송되어 형벌을 받았으나 그녀의 신앙은 흔들림이 없었다.

옥살이의 고초를 겪는 동안 감옥 안까지 함께 온 4살 된 종악이가 엄마 품에서 죽는 큰 아픔을 겪었으나, 그녀는 천국에 일찍 오른 아들의 운명이 복되다고 생각되어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 아직 철도 들지 않은 이 아이는 엄마와 함께 굶주림의 괴로움을 느꼈고 그 여파로 죽었던 것이다. 1816년 12월 16일, 이미 다섯 명의 남자들이 모두 참수된 후에 관장이 남아 있던 두 명의 여자에게 배교를 권했을 때 안나는 대답했다. “관장님 말씀대로라면 남자들은 하느님을 공경해야 하고, 여자들은 공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까? 여러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는 관장께서 법대로 저를 다루시길 바랍니다.” 그녀는 여인이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의 큰 아픔들을 다 겪으면서도 흔들림 없는 신앙으로 순교의 영광을 택하였으니 당시 그녀의 나이는 35세였다.

글: 대구대교구
시복시성위원회

그림: 김효애
(크리스티나)

순교자 이시임 안나님! 저희도 주님을 따르다 겪는 아픔들이 오히려 신앙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도록 주님께 빌어주소서. **필로**

상처

어떤 한 남자가 꿈꾸던 새 차를 한대 장만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이 차를 닦으며 애지중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휴일 아침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집 앞에 세워진 차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구경을 하던 4살짜리 아들이 갑자기 돌로 차를 긁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순간 너무나 화가 난 나머지 아이를 세게 밀쳐냈고, 이것 때문에 그 아이는 발목이 꺾여 몇 주 동안 병원 신세를 져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의사가 다리에 영구적인 지장은 없을 것이라 했습니다.

“아빠 나 괜찮아. 안 아파. 미안해”

아들의 말을 들으며 그는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파 할 말을 잃었고,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새 차를 마구 발로 찼습니다. 고작 차 때문에 아들을 밀어냈다는 생각을 할수록 아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차 앞에 앉아있던 그는 아들이 차에 돌로 긁어 놓은 자국을 보았습니다. 그 자국은 다음과 같은 글귀였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본의 아니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으신가요? 그들은 여러분께 있어 너무나 소중한 특별한 선물입니다.

금주의 성인

6월 29일	성녀 살로메(공주, 은수자, 9세기경), 성녀 엠마(과부, 수녀, 구르크, 1045년) 성 바오로(사도, 순교자, 67년경), 성 베드로(사도, 순교자, 67년경) 성 카시오(주교, 나르니, 538년)
6월 30일	성 라이문도 롤로(선교사, 1232~1316년), 성녀 에렌트루다(동정녀, 잘츠부르크, 718년경) 성 테오발도(신부, 은수자, 프로뱅, 1017~1066년), 성 마르티알리스(주교, 리모주, 250년경)
7월 1일	성 마르티노(사도들의 제자, 주교, 비엔, 2세기경), 성 도미시아노(은수자, 수도원장, 440년) 성 아론(구약인물, 사제), 성녀 에스테르(왕비, 구약인물, BC 5세기경)
7월 2일	성 마르티니아노(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성녀 모네군다(과부, 수녀, 570년경) 성 오토(주교, 밤베르크, 1060~1139년), 성 프로체소(사도들의 제자, 순교자)
7월 3일	성녀 무스타올라(부인, 순교자, 3세기경), 성 아나톨리오(주교, 콘스탄티노플, 458년) 성 토마스(사도, 순교자, 1세기경)
7월 4일	성녀 베르타(과부, 수녀, 블란지, 725년경), 성 호세아(구약인물, 예언자, BC 8세기경) 성 오도(주교, 캔터베리, 959년), 성 엘리사벳(여왕, 3회원, 포르투갈, 1271~1336년)
7월 5일	성 아타나시오(은수자, 수도원장, 아토스산, 920~1000년), 성녀 치릴라(순교자, 300년) 성 안토니오(신부, 설립자, 1502~1539년), 성녀 필로메나(동정녀, 산세베리노, 500년) 성 안드레아 김대건(신부, 순교자, 한국, 1821~1539년)



■ 2014년 상반기 말씀잔치



교구장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21일(토) 오후 3시 교육원 다동 대강당에서 교구 사목국 성서사도직(담당 : 박상용 사도요한 신부)에서 개최한 <2014년 상반기 말씀잔치> 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 제공: 월간 <빛>

■ 제3회 한국 가톨릭 농아인의 날



조환길(타대오) 대주교님께서는 6월 22일(일) 오전 10시 남산동 성김대건기념관에서 전국 16개 지역 농아선교회 신자들과 함께 <제3회 한국 가톨릭 농아인의 날> 미사를 봉헌하셨다.

사진 제공: 월간 <빛>



새주소 사용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 발간

교구 문화홍보실에서는 2014년도 대구대교구 주소록을 새롭게 발간합니다. 특히 이번에 발간하는 주소록은 도로명 새주소 사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제 인사이동 및 개편 등에 따른 최신 정보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판매가 : 5,000원 | 620쪽

구입문의 : 교구 문화홍보실 053) 250-3047~9

늘 조심! 그리고 또한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성모기사회 신심미사	7월 5일(토) 10:00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 (푸른군대) 첫토요 신심미사	7월 5일(토) 11:00 성모당
이주사목후원회 월례미사	7월 5일(토) 11:00 대안성당		

성소 | 피정

성골롬반외방선교회 사제 성소 모임

일시: 7.6(일) 10:00
장소: 서울 돈암동 본부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4번출구)
문의: (02)924-3048

한국외방선교회 성소 모임

일시: 7.6(일) 11:00, 성북동 본부
문의: 조대운(야고보) 신부,
(010)3777-4688

첫 토요일 성모 신심 피정

일시: 7.5(토) 10:00, 다사성당
주제: 자비의 어머니
일정: 미사, 면담, 고해성사
특강: 문봉한(야고보) 신부

내적 여정 에니어그램 피정

기간: 7.9~11(기본), 7.26~28(심화)
문의: 올리베라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대구대교구 빛페제기도

일시: 7.12(토) 18:00
내용: 식사, 폐제, 친교
대상: 남녀 청년, 가족 누구나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수녀원,
(010)9056-9005

산내 치유 피정(선착순 9명)

기간: 7.15(화)~16(수) / 매월 셋째 주
내용: 정기모 신부와 함께하는
주고 받은 상처의 치유 시간
문의: 동천성당, 326-5004

렉시오 디비나 피정

기간: 7.28(월)~31(목)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 집
동반: 이영근(아오스딩) 수사
회비: 20만 원
문의: (051)753-5744 / (010)7720-5744

남성 제249차 꾸르실로 일정 변경

변경 전: 8.14(목)~17(일)
변경 후: 8.21(목)~24(일)
문의: 254-4671

교육 | 모집

대구가톨릭남성합창단 신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 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한중(韓中)천주교 친선협회 회원모집

대상: 공동체를 즐겁게 활동할 모든신자
중국어(성경, 성가, 미사전례, 회화 등), 중국(성지순례, 테마여행, 피정, 홈스테이, 봉사활동, 어학연수, 문화, 경제교류 등)
문의: 계산문화관, (010)2662-1560

14학년도 후기 2차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 특수대학원 신입생 모집

접수기간: 6.30(월)~7.11(금)
문의: 850-3505(교육대학원),
660-5511~13(특수대학원)
<http://www.cu.ac.kr>

세계적 영성가, 매튜 폭스 대구에 오다

일시: 7.21(월) 14:00~18:00
장소: 대구가톨릭대(하양) 테크노관 301호
주제: 새로운 패러다임, 우주 교육의 도래
주최: 푸른평화서울대교구 환경사목부
문의: (010)8695-3536 / 비용: 3만 원

수원교구 사이버 성경학교 입학생 모집

모집기간: 6~8월(9월 개강)
대상: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
네이버: 가톨릭 사이버 성경학교
문의: 성경사목수녀, (010)7249-7966

큰 사랑, 큰 믿음!
대구안과 **이전 확장**
DAEGU EYE CLINIC
백내장, 노안, 근시교정 수술
원장 이호성(아오스딩), 조영수(다미아노)
대구시 남구 월배로 468(대명동)
(구)달성군청자리
☎(053)651-2233

HS **희성고속관광(주)**
HEE SUNG EXPRESS TOURIST CO., LTD.
대표이사 서 상 운(안젤로)
송 경 애(안젤라)
전세버스 / 국내여행 / 해외여행
☎ 522-5800 | 017-508-4328
010-2002-4328

곽엔신원 **이비인후과**
진료과목 - 성형외과 · 소아청소년과
의학박사/원장 신재훈(루카), 박동석(아우구스티노)
코수술 전문병원 (축농증, 비염, 코골이, 코성형)
(1호선 성당못역 3번 출구)
☎ (053)638-7582(치료빨리)
<http://www.ksnose.com>

성요셉요양병원
(구, 논공가톨릭병원)
매일미사, 상시고해·병자성사, 봉성체, 병실순회 기도
치매 · 중풍 · 노인성질환 전문 클리닉 운영
24시간 전문간병인 · 의사 · 간호사 상주 진료
친환경적 병실 운영, 양 · 한방 협진
병원장 장 효 원(요셉) 신부
TEL 053)615-4871

주)거들 짝
(결혼정보회사)
초혼, 재혼
대표전화 : 1600-8743
서울 : 02)579-3889
부산 : 051)817-3885

미소나리 **출장뷔페**
미소나리
예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대표 양 애 향(마리아)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GEM MUSIC ART
0세부터 시작하는 음악감성활동
뮤직가튼전문음악원 (무료오픈수업진행중)
NAVER 블로그 | 유튜브 | 인스타그램 | 밴드
배인영(젬마), 박애리
수업문의 : 010-6853-7531

백두정형외과
SINCE 1975 <http://baekduos.com>
어게 무를 발목 관절경수술
정형외과 전문의 백상근 베드로
신생아 세부전문의 배상영 미카엘라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임형준
동인 치안센터 건너편 053-425-5919
NAVER 백두정형외과 검색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중1~중2: 8.4(월)~6(수), 무학연수원
중3~고2: 8.6(수)~8(금), 무학연수원
고3·대학·일반: 7.22(화)~24(목),

한티 피정의 집
참가자격: 예비신학교 등록생 중
참가자격을 갖춘 자
신청: 각 본당 사무실
마감: 7.6(일)

교육 | 모집

2015 베드로관(小신학교) 지원자 모집

고등학교 전(全)과정을 담당사제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동체 생활, 학업
은 무학고등학교(경북 하양 소재) 재학
대상: 사제성소를 희망하는 중3 남학생
문의: 854-2085, keyofpeter@naver.com

교구 복음화 학교 기초과정 개설

일시: 7.5(토) 10:00, 교구청별관대회합실
대상: 구역장, 반장, 단체장
수강료: 1인 1만 5천 원(점심 제공)
신청 마감: 7.1(화)
문의: 교구 사목국, 250-3056

가톨릭근로자회관 7월 영아성경공부반 모집

개강: 7.1(화) 월 3만 원
낮반: 탈출기, 루카(화, 금 10:10)
저녁: 탈출기, 사도행전(화, 목 19:10)

문의: (010)2578-5535, 관덕정: 잠언

이해인 수녀 특강

일시: 7.6(일) 10:30 교중미사 후
장소: 만촌1동성당

에니어그램 1단계 개강

저녁반: 8.19(매주 화) 19:00~21:00
오전반: 8.21(매주 목) 10:00~12:00
장소: SPC영성상담센터&에니어그램연구소
주관: 샬트르성바오로수녀회 대구관구
신청: 659-3456 / 254-2664

생활성가밴드 DEUS 세션멤버 모집

함께 활동 할 청년 세션멤버를 모집합니다
모집부문: 남자 보컬
문의: 대구가톨릭생활성가협회,
(010)9990-9144 / (010)3807-1968

채용 | 안내

평화계곡피정의집 취사원 채용

모집: 취사원, 숙식가능한 60대(여)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평화계곡
(054)931-0022

(복)데레사소비센타 영업부 남·여 직원 채용

서류: 이력서, 등본(내사, 메일접수)
마감: 7.20(일)
문의: 765-1500

교구법원 공시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김정남(젼마), 김현섭(레오),
전혜영(글라라), 김지영
문의: 254-9550

예수회 새 사제 첫 미사

대구대교구 출신으로 예수회에 입
회한 새 사제들이 출신 본당에서 첫
미사를 봉헌합니다.
이성균 (안드레아) 신부
일시: 7.6(일) 11:00 수성성당
한민 (토마) 신부
일시: 7.6(일) 11:00 김천 평화성당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특집 프로그램 안내

일생을 하느님께 봉헌한 대구대교구 원로신부님들의 삶을 들어보는
'임파라 사랑파라'를 방송합니다. (협찬: 가톨릭경제인회)
시간: 매주 토요일 11:05 ~ 12:00 (김천 100.5MHz, 포항 96.9MHz, 안동 100.7MHz)

7월 5일(토) / 12일(토)	유승렬(바르톨로메오) 신부
7월 19일(토) / 26일(토)	허연구(모이세) 신부

※ 대구평화방송 라디오 광고 안내 (신자기업 우대)_문의: 251-2610 / 2621

성모발현 성지순례
스페인, 포르투갈, 프랑스-13일
출발일: 07월 29일(1차)
08월 05일(2차)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주)성지여행 포털레(유스티노)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하는
100년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새로운 100년
'대가대 르네상스 시대' 를
열어갑니다
함께하는 사람
함께하는 교육
함께하는 대학
대구가톨릭대학교 100

(주)한투어
한투어 성지순례전문
발칸 성지순례(7월 10일 출발)
스페인, 포르투갈 성지순례(9월 28일 출발)
☎ 053-427-7090
안 요한, 김 마리아마달레나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코리아알트만
결혼정보회사
미혼 남녀의
결혼을 상담합니다.
대표 박복순(오털리아)
지하철 2호선 대구은행역 1번 출구
국민은행 옆 두번째 건물 4층
TEL 743-4488 FAX 744-1594

밝은눈안과
원장/전문의 임홍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초음파백내장/라섹수술
수술 전문 병원
달성고 맞은편 654-9660
지하철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유방·갑상선 전문 여의사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대표원장 김 정 경(안젤라)
반월당역 22번 출구 농협 3층
(주차 가능합니다)
예약전화 053)252-6875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